

## I. 시작하는 말

18년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굽어 지내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면 그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잔치같은 분위기가 되어야하는데 회당장의 행동으로 그곳은 싸움터가 됩니다. 회당장은 병을 고치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관하여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회당장을 외식하는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균형이 무너진 회당장은 본질보다 형식에 매여있었습니다.

## II. 중심 말씀

### 1. 주님이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회당장은 율법과 도덕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올바른 말씀하셔도 자신의 기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의 굽은 마음은 예수님 앞에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균형이 잡혀있으며 내가 틀릴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당장은 자신이 옳다는 생각으로 균형을 잡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심에도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며 자신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내가 아닌 주님으로 세워야합니다.

나눔 질문) \_\_\_\_\_

### 2. 주님이 우리의 의미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서 6일동안 지으신 세상이 완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완벽한 창조를 알려주시기 위해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안식일에 사람이 무엇이든 더하거나 빼면 안됩니다. 예수님은 몸이 아파 온전하지 못한 여인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온전한 행동을 회당장이 방해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회당장은 본질을 무시하며 형식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외식하는 사람이라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본질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여 율법이 아닌 주님이 우리의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나눔 질문) \_\_\_\_\_

### 3. 우리들의 굽은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준과 가치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내가 기준일때가 많습니다. 회당장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기준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마음이 굽었기에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회당장과 같은 굽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눔 질문) \_\_\_\_\_

## III. 정리하는 말

무너져있는 우리 마음의 모습을 주님께 드려 굽어진 마음을 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 1. 환영의 시간(Welcome) : 행복한 기억 나누기

### ◆ 임재찬양

- 1)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 2)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 ◆ 마음문 열기 : 한 주간 감사 나누기, 게임

## 2. 경배의 시간(Worship) : 복음성가나 찬송가로 경배하기

### ◆ 찬송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찬202)

- 1)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 2)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댄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 3)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 4) 주 예수 날 사랑 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 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 5) 주 예수 날 사랑 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후렴)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 ◆ 쏟아놓는 기도 : 나의 죄,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 ◆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댄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 3)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 3. 말씀 나눔의 시간(Word) :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 ◆ 말씀 나눔 및 결단의 기도
- ◆ 기도제목 나눔 및 합심 기도

## 4. 사역의 시간(Works) :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

- ◆ 교회를 위한 기도 -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 한반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위정자를 위하여
-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